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3년 32호

여름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Contents

2013년 제32호 여름호



취임사 1	동문회의 결집된 힘을 보여줍니다 • 장 재 인(17회) 신임회장
이임사 2	18대 동문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서 국 진(13회) 직전회장
인터뷰 4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비전 • 조 찬 휘(15회) 대한약사회장
당선자 명단 5	모교 출신 지부 및 분회장
이사/회장단 명단 6	이사 명단 / 회장단 명단
동문회 소식 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신임회장에 장재인(17회) 동문 선출
10	2013 동문회 소식
지부별 소식 13	중앙대학교 ROTC동문회의 명예, 4개 우수학군단에 우뚝서다 • 손 의 동(22회) 11대 ROTC동문회 회장
동기회 소식 16	7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 배 동 운(7회) 총무
20	16회, 졸업 40주년을 마치며... • 이 은 주(16회)
23	보고 싶다! 친구야! • 정 순 철(36회) 前 동기회장
약국도움이야기 26	세균(bacteria)의 족보를 찾아서 • 편집위원회
조문 30	김명섭(5회) 자문위원 별세
만평 31	19번째의 기도(禱) •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문학산책 32	어떤 귀향(歸鄉) • 박 희 용(23회) 편집위원
36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 허인회(4회) 명예교수
동문회 장학금 37	2013-1학기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장학기금 38	장학기금 현황 / 신임교수 프로필
편집후기 40	편집후기

중앙약대 동문회보

인쇄 : 2013년 7월 25일

발행 : 2013년 7월 25일

발행인 : 장 재 인 | 편집인 : 김 기 명

발행처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565-1700 팩스 : 564-1701

인터넷 : <http://www.caupharm.or.kr>

E-mail : capa21@hananet.net

기획·인쇄 : (주)YSP

전화 : (031)955-0150(대)

팩스 : (031)955-0159

동문들의 결집된 힘을 보여줍니다



장재인(17회)
신임회장

막중한 사명이 요구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이라는 자리에 선 지금 비재박식(菲才薄識)한 제가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어깨가 무거워짐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감히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선배님들과 후배님들 사랑 속에 여기까지 왔고 또한

모교에 대한 애정만은 그 누구 못지않다는 자부심에서입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우수한 대학일뿐 아니라 우리 동문들이 약계 전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고 해서 동문회의 사명은 더욱 막중하고 더불어 명성에 걸맞게 훌륭한 동문회로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은 명성과 업적에 누가 되는 일 없이 대 중앙인의 긍지를 살리는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고 보아 왔던 것처럼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후배님들의 열의에 찬 협조로 합심도 모해 가는 것을 보면서 대 중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무리 상황이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동문수학한 선후배의 학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국적은 변하여도 학적은 변치 않는다는 만고의 진리가 생겨난게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회장단의 임기에도 동문회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다 그러하겠습시다만 조직이나 단체의 발전은 특별한 개인이나 몇 사람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객관적인 제도에 의한 각자의 충실한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시대 정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동문수학한 동문이란 의미가 어제와 내일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위정(各自爲政)함이 없이 동문회로 힘을 모을수 있다면 우리 동문회는 더 크게 도약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천시지리 불여인화(天時地利 不如人和)라 했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결집된 힘만이 대 중앙인의 품위와 긍지를 과시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큰힘을 결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자 궁이부쟁 군이부당(君子 矜而不爭 羣而不黨)이라 했습니다. 긍지를 가지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어울리면서 편당하지 않는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동문회를 결속함에 있어 작은 나를 버리고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동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격론하되 결론에 순응하는 가운데 하나로 나갈수 있는 동문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집된 힘이 대 중앙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응결되어 힘 있는 동문회로 발전해 가는데 제가 그 중앙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의 동문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대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동문회가 일취월장 하길 기대합니다.

동문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내가 행복으로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18대 동문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고 했
습니다만 정말 실감하는 지난 2년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동문
회 회장직을 수행한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제 능력에 다소 과분하다할 정도로 힘들고 어
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문회의 고문님, 자문위원님,
각 기수별 회장단, 이사진, 상임이사진들, 그
리고 1회부터 56회 졸업생까지 약 7,500여 동
문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참으
로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
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
립니다.

그리고 행여 회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
인의 과오나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동문 선후배님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을 빌
려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서 국 진(13회)
직전회장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우리들은 약사라는 천직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약대건물의 신축, 동문장학금 확충사업, 세계화를 지향하는 모교의 발전 등등 충분히 긍정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들의 사회적 위상 추락, 의약품 편의점 판매, 약대 신설과 증원의 왜곡화, 최근 전국 약 17,000여개 약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구 불일치 등 분업제도의 모순이 한꺼번에 약사사회를 강타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약사사회 내부의 단결 필요성과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배님들의 동문 사랑과 열정, 그리고 후배들의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더한 단결력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라도 충분히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밥알이 밥그릇에 있을 땐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밥알이 머리카락에 묻어있으면 추해 보이듯이 저희 중앙대 약대 동문님들은 자랑스러운 약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물론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만 가정이나 사회 생활에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문님들에 대하여 항상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약사회 회장선거의 직선제 이후로 약사사회나 동문회 내부에 뜻하지 않는 분열과 반목들이 심심치 않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선거제도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상대에 대해 다소 섭섭한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자는 선거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또 승자는 무한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선거풍토가 조성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연꽃잎이 자신이 감당할 만한 빗방울만 신고 있다가 그 이상이 되면 미련 없이 버리는 지혜와 용기처럼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 정말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여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선후배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동문 선후배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수고로움과 열정을 더하시어 앞으로도 동문회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저희 제18대 집행부(회장 서국진)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며 미력하나마 동문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님들의 앞날에도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들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임인사를 마치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약사회장으로서 비전



조 찬 휘(15회)
대한약사회장

안녕하십니까? 제37대 대한약사회장 조찬휘입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32호 동문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서국진 동문회장님과 김기명 동문회보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약사사회에 불어온 수많은 위기들은 대한약사회로부터 개인 회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단결력과 약사 직능에 대한 자부심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화합과 단결력은 큰 힘과 모범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단결력의 바탕에 동문 간 소통, 약사 현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동문회보의 역할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문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의약분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등 산적한 현안 앞에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약사직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혁신적인 발전은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수많은 전문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은 전문가의 위기 시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약사직능 또한 이러한 위기와 변화의 요구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약사 직능의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약사 회원이 행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을 위해 회무 철학을 「앞서가는 약사회!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로 세웠습니다. 시급한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은 물론,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서 준비하고 약사직능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계속해서 남을 수 있도록 근거 중심의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직능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우선시 하는 단체라는 정체성을 기본으로 회원과의 소통강화, 투명한 회무 운영, 불합리한 약사관련 제도 개선 등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든지 국민을 앞에 두었을 때 정책 추진의 어려운 매듭은 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약사 직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향후 정체성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께서도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전문성 강화와 자기계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약사회 회무에도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와 동문회보의 발전을 기원하며 동문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모교 출신 기부 및 분회장 명단-

대한약사회장	조찬휘(15회)	
시도 지부장	충청남도 전일수(22회)	경기도 함삼균(24회)
	인천시 조석현(25회)	경상남도 이원일(27회)
	서울시 중랑구 정덕기(23회)	인천시 부평구 최병원(30회)
	서울시 은평구 전광우(18회)	인천시 계양구 김용구(36회)
	서울시 마포구 양덕숙(28회)	부산시 부산진구 윤태원(25회)
	서울시 강서구 이종민(29회)	대구시 중구 최종성(22회)
	서울시 영등포구 유정새(10회)	대구시 유성구 이창환(21회)
	경기도 구리시 권용식(36회)	충남 공주시 고현성(29회)
	경기도 동두천시 송태수(25회)	충남 부여군 이희영(14회)
전국약사회 분회장	경기도 부천시 김보원(34회)	충남 서천군 오성근(11회)
	경기도 안산시 김덕진(27회)	충남 홍성군 조덕희(30회)
	경기도 안성시 이규홍(22회)	강원도 영월군 김인기(19회)
	경기도 안양시 손병로(29회)	강원도 양구군 민장식(22회)
	경기도 오산시 이동규(25회)	강원도 고성군 남윤수(19회)
	경기도 의왕시 이정근(39회)	강원도 양양시 이채권(26회)
	경기도 포천시 김명수(14회)	경남 산청군 김상범 (28회)
	경기도 하남시 이현수(25회)	전북 완주군 김태성(17회)
	경기도 여주시 장영배(26회)	제주도 서귀포시 이석원(28회)

제19대 회장단 명단

	성명	기수
회장	장재인	17회
수석부회장	김성지	17회
부회장	선우영환	17회
	송진섭	17회
	신상직	17회
	신창억	17회
	안환욱	17회
	유종관	17회
	이완철	17회
	이희정	17회
	주원표	17회
	박계환	18회
부회장	전광우	18회
	정명진	18회
	조중형	18회
	이경욱	19회
	윤건섭	19회
	김경오	19회
	김현태	20회
	박기배	20회
	유영내	20회
	이상일	20회
	정찬헌	20회
	김수배	21회
	김중효	21회
	최병철	21회
	홍종오	21회
	강희운	22회
	유대식	22회
	전일수	22회
	최광훈	22회
	박종화	23회
임준석	23회	
정덕기	23회	
한치완	23회	
이광섭	24회	
이규삼	24회	
이범도	24회	

	성명	기수
부회장	함삼균	24회
	황규진	24회
	김광호	25회
	김희섭	25회
	이내홍	25회
	조석현	25회
	최두주	25회
	김안식	26회
	오옥희	26회
	윤용혁	26회
	최민규	26회
	한갑현	26회
	곽나운	27회
사무총장	김정호	27회
부회장	박영달	27회
	한봉길	27회
	김영희	28회
	김희식	28회
사무부총장	양덕숙	28회
	이영주	28회
부회장	이해룡	28회
	장원규	28회
	전금용	28회
	최용철	28회
	손병로	29회
	유종운	29회
	강대용	29회
	고석일	30회
	김광식	30회
	백영주	30회
	정선종	32회
	조양연	32회
	김은곤	33회
	조준상	33회
	김보원	34회
	도건호	35회
	이경선	35회
임중식	35회	

제19대 이사 명단

1회	홍흥만, 김육동, 김기홍, 김순일, 손동헌, 이광표, 이동하, 장 레, 박학진, 오유진	17회	김인형, 양희익, 김기중, 김대희, 김성택, 김인회, 김재천, 김중환, 김태성, 유승화, 이동우, 전상훈, 윤수근, 전선영, 박재식, 전우준, 윤희숙, 이윤식, 정갑진
2회	이문규, 김종욱, 김홍식, 정덕화, 지선훈, 박문호, 최관용, 신양균, 한성순, 최영대, 황재수	18회	강응모, 김기명, 김상각, 이원영, 한창일, 김애경, 박광숙, 최한규, 임태영, 이성배, 김종기, 전춘이
3회	손석우, 강승조, 노인배, 배영식, 김석자, 박종순, 선우연, 안경식, 이기상, 윤영식, 안재민, 박기하, 이병균, 오세형, 최종묵	19회	김미담, 남상구, 박희식, 안형수, 옥태석, 유태일, 차영수, 신성희, 성귀현, 신성익, 권창호, 이창욱
4회	천홍기, 구본원, 김기호, 김현용, 김홍수, 문창하, 박노일, 박승배, 정재원, 안국영, 이창우, 최영만, 한민희, 허인희	20회	이영희, 이극선, 이신규, 이호선, 송창수, 최석중, 임경원, 조진환, 유화승, 허문영, 박영근, 임구래, 한광식
5회	김상오, 김영배, 김재윤, 박영규, 신화우, 윤원영, 이명환, 이송학, 정훈교, 임영규, 조동준, 강태일, 변동선, 정혜영	21회	이상준, 김두수, 이규섭, 전명선, 김동학, 백운경, 한성희, 이세진, 김동연
6회	김경희, 김동렬, 유관열, 유상열, 박정배, 신정숙, 안병한, 안인희, 이현영, 이성호, 임성기, 임완호, 임철부, 장정희, 장지용, 전희태, 진교성, 홍병석	22회	한만영, 강명희, 김홍진, 오황영, 이명욱, 이준상, 손의동, 이현희, 차달성, 정진호, 전철호, 이규홍, 한상훈
7회	정재일, 강승안, 김영덕, 김정부, 김영일, 박명신, 박상용, 박수배, 박숙자, 배동운, 서명규, 신완균, 유영후, 이기안, 이능세, 이양현, 이용원, 장영수, 정조원, 최춘자	23회	조병훈, 강한구, 광창림, 권경자, 공인호, 김영출, 김영표, 박희용, 유연승, 이승하, 정세희, 제갈희, 조근태, 하종렬, 홍순욱, 김영식, 조경준, 윤덕명
8회	조익환, 임삼목, 김돈기, 김희영, 박도규, 박번일, 유영수, 한석원, 광유환, 김연희, 김홍자, 김신자, 허근희, 배영애, 장영자	24회	김태두, 조종래, 김승재, 정종근, 박길태, 양성철, 최영욱, 임우호, 함한성
9회	권혁구, 이규진, 김익섭, 권태섭, 양무웅, 이근배, 황태선, 박성학, 김영빈, 김영부, 윤광노, 박장우, 최영근, 문영동, 김홍래, 이찬호, 김 철	25회	고성권, 김영식, 이재희, 이민원, 전경숙, 김춘규
10회	김영호,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서정목, 안영태, 유정사, 이대운, 이왕원, 이영민,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주정덕	26회	이영준, 김학철, 김정수(A), 박정래, 윤광중, 선우일원, 하재일, 백낙기, 문형철, 최태형
11회	김승업, 황공용, 정덕호, 황문상, 김미자, 김창중, 박승보, 박상희, 박찬희, 박희경, 김정길, 고승하, 최옥출, 신명승, 이명자	27회	박수길, 김덕진, 현기원, 최종식, 윤영한, 오홍설, 이창오, 최종대, 민병희, 변옥희, 오순용, 유재수, 서평석, 이원일
12회	김 구, 심재용, 노덕재, 이호섭, 강옥희, 남기탁, 노석준, 박영찬, 우준하, 이호훈, 이성우, 조택상, 최병호, 이관하, 이정규, 염윤기, 서태욱	28회	이병천, 고재호, 송준용, 신영무, 안희규, 유희동, 이숙희, 조상오, 조형진, 이상수
13회	박동규, 서국진, 문재민, 이종각, 안병식, 이상길, 최창엽, 김종성, 이재진, 조성복, 이종식, 윤해선, 구연홍, 엄계숙, 임유재	29회	이 준, 이종민, 하숙량, 서경원, 유승열, 이진자, 현상배, 김은진, 한일룡, 이종욱
14회	구종모, 정진모, 김동원, 현수홍, 김윤국, 조영연, 김종렬, 신광근, 양인순, 조길도, 엄태항, 박기진, 김명웅, 윤대봉	30회	이장무, 최병원, 홍성광, 김혜수, 정용진, 신일균, 최병태, 이진우, 정의차, 김정일, 도민숙
15회	박석동, 임영식, 윤종준, 강용순, 조찬휘, 김윤빈, 이상용, 고동석, 박원봉, 이영운, 권영선, 오세일, 임수만, 김영만, 원장희, 장해성, 김용의, 위혜주, 최영덕	32회	이경우, 정영복, 김신규, 서용욱
16회	유기욱, 김광식, 허사길, 조기현, 강명채, 권영복, 송용만, 안태환, 우상규, 이은솔, 이은주, 하상권, 최창원, 고숙자, 이범준, 한인희, 김재성, 백승복, 차동일, 최광식	33회	이정수, 김용선, 김정태, 임희원
		34회	한일권, 김영미
		35회	최규룡, 광정근, 은형주, 이기훈, 이성주, 김미정, 권혁상, 황광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신임회장에 장재인(17회) 동문 선출 여동문회장에 양덕숙(28회) 동문

지난 5월 24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11층에서 제56차 (2013회계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장재인(17회) 동문을 제19대 동문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서국진 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중앙대학교 이용구 총장, 박진서 총동문회장과 약대 한상범 학부장이 참석하여 동문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으며, 서울대약대총동문회 천문우 회장, 이화여대약대총동문회 정준순 회장, 백경신 총무, 성균관대약대총동문회 신충웅 회장, 숙명여대약대총동문회 김순례 회장, 숙명여대약대개국동문회 윤복숙 회장, 덕성여대약대총동문회 조덕원 회장, 덕성여대약대서울동문회 김은주 회장, 한국여약사회 성수자 회장 등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경기도약사회 함삼균 회장, 인천시약사회 조석현 회장 등 동문회원들을 비롯하여 내외빈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막을 올렸다.

서국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동문들의 지지와 협조로 18기 회장단이 출범했지만 지난 2년간 모든 것을 해결하





수상자	
<p>총장 공로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영식(15회) 제일공안약국 대표 ▪ 박기배(20회) 행복한약국 대표 	<p>총동창회장 공로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수A(26회) (주)하이텍팜 대표이사 ▪ 약품물리반 장원규(28회) 회장 ▪ 병태생리반 최충식(27회) 회장
<p>학장 공로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현태(20회) ▪ 이상일(20회) 한국휴텍스제약(주) ▪ 최두주(25회) 하안약국 대표 	<p>동문회장 공로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룡(28회) 동대문약국 대표 ▪ 김원호(49회) 우리종로약국 대표 ▪ 조재영 삼성생명 팀장

기에는 대내외적 현안이 너무 많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동문의 염원이던 신축 약서관 완공과 동문 단일회를 통한 대한약사회장 당선은 동문회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자부심의 일단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서국진 회장은 “지난 2년간 동문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문 선후배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총회에서는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와 2013년도 사업계획,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모두 이의 없이 처리되었다. 또한 회칙개정의 건을 통해 부칙 제22조 제3항을 “졸업 50주년을 지난 동문들은 각종 회비를 면제한다”에서 “졸업 50주년을 지난 동문들은 일반회비를 면제한다”로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임원선출에서는 신임 동문회장으로 장재인

(17회) 동문이, 여동문회장에는 양덕숙(28회) 동문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신임 장재인 회장은 “어느 조직이건 특정 인물 몇 사람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렵다.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명실 공히 힘 있는 동문회가 될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아울러 “중대약대의 명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노력으로 일궈놓은 것으로 후배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여 잘 따라주길 바라며, 또한 선배들은 중대약대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킬 주체가 후배라는 생각을 갖고 물심양면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덕숙 여동문회장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3 동문회 소식



● 1월 11일
2013년도 신년교리대회



● 2월 27일
2013년도 약학대학 입학식



● 2월 14일
2013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 3월 27일
2013년도 학기 장학금수여식



● 3월 27일
18대 제9차 회장단회의



● 5월 14일 윤리위원회의



● 4월 9일
감사수감



● 5월 16일 여동문회월례회



● 4월 26일
최종이사회



● 6월 13일
고문단, 자문위원단 회의



● 6월 15일
부산동문회 정기총회



● 7월 19일 삼진제약 조의환(8회) 회장,
이성우(12회) 대표이사 방문



● 7월 9일
19대 제 1차 회장단회의



● 7월 19일
대한약사회 조찬회(15회) 회장 방문



● 7월 15일
일양약품 정도연(14회) 회장 방문



● 7월 19일
약사공론 전영구 사장 방문

중앙대학교 ROTC 동문회의 명예 4개 우수 학군단에 우뚝 서다



손 의 동(22회)
11대 ROTC동문회 회장

ROTC 창립 52주년, 1기 임관 50주년

중앙대학교 ROTC 약대 동문회를 결성한지 12년이 지났다. 약대 동문이 모두 ROTC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약대 ROTC 출신 동문회에 관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특히 본인

이 2012년 CAU ROTC 동문회를 직접 이끌었기 때문에 더욱 영광스럽게 느껴진다. 약대는 창립이 53년이고 ROTC는 61년으로 8년 차이가 나지만, ROTC는 3학년에 입단하므로 59학번과 동기에 해당되어 약대와는 6년의 차이가 난다(1기가 약대 7회에 해당). 약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임상목, 권혁구, 유정사 회장도 ROTC 2기, 3기, 4기 선배이다. 올해가 ROTC 창립 52주년이고, 1기는 임관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현재까지 중앙대학교의 경우 5,700여명이 임관되었는데, 그 중 약대는 확인된 분만 약 2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약국, 병원, 제약회사, 식약처 등은 물론 대한약사회, 사회단체, 정치계 및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본인은 ROTC 16기로 1978년 임관했다.

활성화된 동문회, 그러나 명맥 끊어짐이 아쉬워

창립 40주년인 2001년 11월 25일에는 시청앞 프라자호텔에서 1기 노정익 선배를 필두로 약대 동문회 창립 및 40

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은사님(한덕룡, 김종갑, 손동현, 김일혁, 이광표, 김기호, 허인회 임철부, 김창종 교수님)을 비롯하여 이상연 중앙대 ROTC 동문회장, 이도익 학장, 한석원 대한약사회장, 유영후 약대 동문회장과 약대동문 60여명이 자리를 같이해 은사님과의 만남, 선후배와 동기간의 사랑과 우정, 유머와 웃음, 그리고 코끝까지 찡한 감동을 초래한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작부터 끝까지 감동의 도가니를 연출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동문들에게 그날 밤은 짧기만 했으며, 보는 즐거움과 참가하는 기쁨을 동시에 만끽하여 ROTC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감으로 가득했다.



박 중 화(23회)



고 성 권(25회)

약대 동문회 역대 회장으로는 노정익(1기), 임상목(2기), 권혁구(3기), 유정사(4기), 정명진(12기), 박영근(14기)에 이어 조진환 현 회장(14기)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약대 동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기회 닿을 때마다 은사님들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등 활성화된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면 이원영 동문(12기)이 은사

님을 모시고 성대한 민어회 파티를 연 기억이 생생하며, 박종화 동문(17기)은 온누리 약국체인을 이끌고 있고, 동문회 사무총장 김승재 동문(18기)은 대한약사탁구연맹을 창설했다. 동문회 결성 후 최영욱 학장(24회)에 이어 본인이 학장으로 재직시 약대 신축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억이 새롭다. 후배들의 경우 사병보다 긴 복무기간으로 인해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까운데, 41기 전재현, 42기 박철현, 43기 박진석이 명맥을 이어온바 장학금 수여로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2009년부터는 약대 6년제 시행으로 인해 약대는 제도가 없어지게 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필자 왼쪽 두번째, 오른쪽 현 중앙대 동창회장 박진서(15기)

우수 학군단에 선정되다!

중앙대학교 ROTC 총동문회는 1960년 창립 이래 29년이 지난 1990년에 결성되었다. 1대 전우연(1기), 2대 최성원(1기), 3대 김태규(1기), 4대 이동균(1기), 5대 이상연(4기), 6대 노무지(5기), 7대 박정태(6기), 8대 김세일(7기), 9대 이영우(12기), 10대 배성길(13기), 11대 박진서(15기, 현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장) 회장의 임기 후 2012년 본인이 12대를 맡았다. 특히 박진서 직전회장이 학군단에 후보생 장학금 유치 및 매년 10명에게 장학금 지급, 후보생 전원 외

국전지 훈련 등 동문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인계를 받았다.

2012년 순조로운 출발과 함께 좀 더 고품격을 지향하고자 1월 시무식도 약대 102관 유니버시티클럽에서 시행하였는데, '술과 인생'이라는 제목하에 경영대학 출신이지만 술제조법으로 프랑스에서 학위를 받은 중앙대 인삼연구소 출신의 정현배가 특강을 하기도 했다. 또한 본인을 도와 ROTC 사무총장으로 맹활약한 약대 출신 고성권 교수(19기, 세명대 교수 겸 고연벤처 대표이사)도 CAU 인삼연



구소 출신으로 멋들어진 주도 삼척을 강조했는데, 절제, 知酒知己(술을 알고 나를 알자), 풍류(멋있게, 재미나게, 당신 멋져)가 그것이다.

2월에는 입단 승급 임관 신고식 지원격려, 6월 한마음 등산대회(수락산)와 3학년 육군훈련소(논산), 4학년 학생 군사학교(괴산)입소 지원, 9월 후보생 해외군사훈련 탐방 워크샵, 6.25참전국인 태국의 2사단 21연대를 방문하여 한국전쟁참전비 참배, 대전 국립현충원과 2함대사령부 전적비 답사(평택), 10월에는 ROTC 중앙회 나라사랑, 국민화합, 세계평화 대행진(제주이어도, 독도, 백령도, 백두산)에 참여했다.

이런 중앙대학교 동문회의 두드러진 활약이 인정되어 ROTC 중앙회 평가에서 중앙대를 포함하여 4개 학교가 우수 학군단에 선정되어 상패와 우수회장을 부여받았다.

송년회 모임에서는 육군대장 출신 이철휘(13기, 긍정의 힘 교육원) 원장의 '4방향으로 소통하라' 를 감명깊게 들었다. 강연 내용은 리더십은 좌우 동료간(fellow)과 아래 부하(leader)와 위 상관(follower)모두에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미국 존 맥스웰의 다방향 리더십과 같은 개념).

2012년 한해를 결산하는 자리에서 자랑스런 CAU ROTC 인 상은 김운섭 사장(10기, 유한양행)과 박전희 원장(15기, 한국의약품 시험연구원)이 수상했으며, 박종화(17기), 한봉길(21기) 등 많은 약대 동문의 적극적인 호응이 모임의 의미를 더했다. 지금은 17기 김재동(YTN 보도국장) 회장에게 인계되어 더욱 더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서국진(14회, 약대 동문회장),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 선배와 함께 약대 전임회장인 정명진(12기), 박영근(14기) 선배님께 특별히 감사사를 드린다.

향후 더 큰 역할을 기대함

“창의와 질서를 존중하며 진실·공평·정의사회를 구현한다.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봉사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1961년 6월 1일에 16개 종합대 학군단이 창설되어 2013년 51기까지 5,710명이 임관되어 온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ROTC 동문회와 약대 동문회에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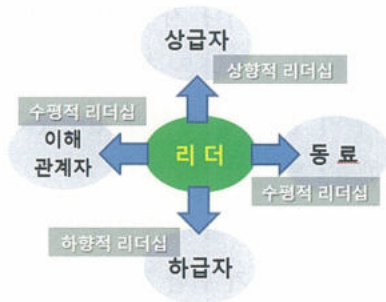
최우수 학군단의 명성에 맞게 군번 1번을 최다 5번이나 배출한 중앙대학교의 명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존맥스웰과 이철휘 이론과의 비교



John, C. Maxwell
"다방향 리더십"(2005)



리더십은 영향력 행사방향에 따라 일방적으로만이 아닌 다방향으로 발휘되는 것이라는 이론

☆출처 : "The 360 Degree Leader"



(예) 대장 이철휘
"4방향 리더십"(1986)



리더십은 리더가 조직의 상하좌우 구성원 모두로부터 사랑, 존경, 신뢰를 받아 최선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출처 : "간부의 사고"



7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배 동 운(7회) 총무

졸업 50주년 기념은 왜 해야하며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할까? 결론적으로는 만나야 한다. 모이게 우선이다. 가능하면 많이...

삶의 진정한 목표는 행복하기 위한 것 입니다. 두눈은 행복과 불행을 보라고 있는 거 랍니다. 만남자체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운 사람은 누구인가?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볼까? 전화를 할까? 우물쭈물하면서 지내 왔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지난 5월 6일 졸업 5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드디어 감사드려야 하고 그리

워하던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평소 궁금하고 보고싶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된 것은 커다란 행복이요, 축복이요, 감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용 교수님, 김일혁 교수님, 손동현 교수님, 이광표 교수님을 뵙는 순간 건강하시고 따뜻한 모습에 한층 밝은 분위기가 되었고 그동안 찾아뵙거나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던 죄스러움이 조금은 감추어진듯한 가벼운 마음이 되었고, 참석한 친구들도 행복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행사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상속에서도 우리 만남을 우선으로



하고 경향각지에서나 미국에서도 참석해주신 60여명의 동기생과 그 가족분들 그리고 은사님들과 내빈을 포함하여 100여명이 넘게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온 김옥남, 윤영희, 박송가 부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라도 꼭 참석해 보겠다고 의욕을 가졌던 고 전인자 동기의 부군과 며느리께서 참석해주셔서 그 자리가 숙연하기도 하고 가슴뭉클한 뭐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중앙대 약대 7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다는 「팡파레」와 사회자의 멘트에 이어서 국민의례, 속국선열과 먼저간 친구들을 위한 묵념, 애국가제창이 있은후 정재일 회장의 내빈소개 및 졸업 50주년에 즈음한 소회를 밝히는 감동적인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서동철 약대학장의 축사와 한덕용 교수님, 김일혁 교수님, 손동헌 교수님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있으셨고, 서국진 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정재일 회장이 장학기금 오백만원을 서국진 동문회장에게 전달도 했습니다.

또한 회의 발전에 기여한 강승안, 김정부, 김옥남, 임중홍, 이양현, 전승규, 배동운, 노신희(9회) 에게 정재일 회장이 지급하는 감사장과 부상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한사람 한사람이 일어나 인사를 할때마다 반가움을 우회와 같은 박수로 격려해주었고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교수님과 동기생들만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1부 순서를 끝내고 회장단과 교수님들의 축하케이크 컷팅이 있었고 한덕용 교수님의 건배제의로 2부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식사시간내내 감미로운 섹스폰 소리와 소주, 막걸리와 친구들의 따뜻한 우정이 버물어져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대망의 3부에서는 친구들의 진솔한 하고싶은 말이나 노래같은 장기자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송정애」 외 10여명의 여학생 합창대(?)가 부르는 「고향의 봄」 과 목청껏 부른 「우리의 교가」 는 또 다른 감상과 감동과 벅차오르는 모교에 대한 고마움과 은사님들의 은혜를 포함한 많은 일들이 행복한 마음과 기쁜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감동이 흐르는 「최명자」 의 자작시를 낭송하여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고 언제 연습을 했는지 가수뻘치는 노래실력의 「정조원 동기의 섬머타임」 애절한 김옥남의



에스터데이/ 김정부 부부의 고장난 벽시계 / 전승규의 하버드대 견학기 / 강승안 부부의 립스틱질계바르고 / 이정학 부부의 못다한 사랑 / 이복용 부부의 투병기 / 신완균 부부의 청실홍실 / 임중홍 부부의 꿈이여 다시한번 / 유명후의 학교발전기금과 관련일화 / 이능세, 윤영희의 선구자합창 / 박양시의 님의 향기 / 임종일 부부의 애창곡 재미 박송자와 부군의 사랑의 역사(?)와 고 전인자 동기 부군의 약대사랑 등등 이야기 꺼리 즐길꺼리가 풍성했지만 다 표현할 수 없는 시간에 떠밀려 참석자 모두 손에 손잡고 「만남」을 합창하면서 졸업 100주년(?)기념식에 다시 만나자는 헛된(?) 구호를 외치면서 기념행가는 아쉬운 막을 내렸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아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언제나 처럼 더 잘할걸 좀더 좀더 하는 마음으로 꽉차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양손에 들려진 기념품이나 행운상품 보다는 더 따뜻하고 행복한 믿음의 우정을 가득담아 각자의 안식처로 갔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다음날 5월 7일, 8일 양일간은 아침 7시부터 영등포역에서 출발하는 졸업여행이 시작됩니다. 정재일 회장의 42명이 버스를 이용하여 밀양의 유명한 고찰 표충사를 관람하고 여름에도 얼음이 언

신비한 얼음계곡을 트레킹하고 국가에 어려운일이 생길때 마다 땀(?)을 흘린다는 표충비를 관람하고 유명한 「부곡하와이관광호텔」에 여장을 풀고 흥미진진한 「외국인 관광쇼」를 본후 대단위 온천장에서 온천욕으로 피로를 해결한뒤 토속주와 함께한 저녁식사로 여행첫날일정을 유쾌하게 끝내고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준비한 간단한 조식과 떡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간 떡과 과일로 중간중간 에너지를 충당하고 동기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먹거리로 계속입이 즐거웠고 이기안 부부가 참외 한박스를 기증했고 김옥남동기가 사과 한박스로 입은 계속행복했었습니다.

마지막날 5월 8일은 아침 7시부터 움직여 「우포늪」 지대를 트레킹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너무도 유명한 합천해인사의 웅장한 사찰과 팔만대장경 그리고 신비한 경내를 두루 살피고 마지막코스인 전북 무주덕유산에서 「곤도라」를 이용해서 설천봉을 경유 최고로 높은 「향적봉」에 모두 올라 점령하고 우정의 기념사진을 찍고 하산한후 5시경 서울로 출발했고 귀경도중 휴게소에서 우동으로 저녁을 마치고 5월 6,7,8일 2박 3일의 졸업여행을 끝냈습니다.

여행내내 즐거움을 주기위해 너도나도 누구랄것없이 참여하고 갖고있는 재능을 보여주어 서로서로에게 기쁨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동기회와 상호회를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사랑

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번에 특별회비를 내주신 정재일, 유영후, 이기안, 박명신, 김영일, 송주현, 강승안, 김옥남, 김정부, 이양현, 임종홍, 전승규 동기 등에게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여러분! 가족여러분! 우선 너무너무 감사해야 할 일이 많군요.

걸을수 있는것 / 설수 있다는것 / 볼수 있다는것 / 만질수 있다는것 / 또 만날 수 있다는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겠지요. 어디엔가 이런말이 있더군요.

「영원히 살것처럼 꿈을 꾸고 오늘 죽을것 처럼 열심히 살아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또한 가랑잎 처럼 가볍고 두꺼운자는 그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이다」

「가장어리석은 자는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것이다」

친구여러분!

“증오의 마음은 물위에 쓰고 은혜로운 마음은 바위에 쓰라고 했습니다”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은 모두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기억하면서 서로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또 다른 어떤기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준비위원과 적극협조해주신 친구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여러분! 가족여러분!

졸업 100주년(?)기념행사에 참석할때까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오직 건강하고 강력한 숨쉬기 운동을 끊임없이 해서 100주년(?)때 꼭 만납시다.

[나이가 들수록 넉넉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늙어가더라도 지난 세월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젊게 살아가세 하소서, 가진것 주위에 모두 나누어 아낌없이 베푸는 너그러움이 기쁨의 웃음으로

남게하소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데 마음의 부자로 여기며 살게하소서

근심없는 시간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졸업 50주년 기념행가를 마무리 하면서....

참석했던 친구와 가족들, 사정상 참여하지 못해던 많은 친구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친구들 빨리 쾌차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많이 갖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빠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따지지 말고! 빠 빠 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친구여러분!



16회, 졸업 40주년을 마치며...



이 은 주(16회) 동문

나이가 육십을 넘어가면서 나에게 “특별한”이란 단어도 “나중에”라는 단어도 이미 내 사전에선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터득한 생활 신조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좋은 옷을 해드리거나 그 당시엔 귀하었던 금으로 된 쌍가락지나 금비녀를 해드리면 항상 그것들을 소중하게 보관만 하시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 가끔씩 특별한 모임에만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만 사용하고 깨끗이 손질해서서 그저 장롱속에 곱게 차곡차곡 넣어두시고 한번씩 꺼내보시면서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띄우시며 양 손바닥으로 곱게 쓰다듬으시곤 하

셨다.

그리곤 항상 오래된 옷을 입으시고 은비녀와 은가락지를 사용하셨다. 자식들의 성화가 빗발치면 잠시 사용하지다가 재빨리 제자리에 원위치시켜 놓으시는 것이다. 문제는 할머니가 세상을 뜨시면서 유품정리를 하는 자식들이 지어드린 그대로 손도 안된 옷과 패물들을 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을 터트렸고 처리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걸 난 그때 알았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길어져 백세를 사는 시대라 하여도 육십을 넘어가면 매일매일이 정말 소중한 특별한 날이지 올리고 안올리도 모르는 그 날을 위하여 전전공공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난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항상 주문처럼 되 내이고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고 일생에 가장 소중한 하루다”

“졸업 40주년 행사를 마치며”란 이런 글을 쓰면서 서두가 왜 이렇게 길어졌나하면 모든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마무리가 된 일에는 항상 아련한 아쉬움과 가슴 한 편에 공허한 미련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졸업 40년을 맞아 우리들의 상큼하고 풋풋한 그 시절을 반추하며 교수님들을 모시고 동기들과 몇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일생에 단 한번뿐인 40주년이라는 모임이 무슨 일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는지 우린 겨우 32명이 참석하였다. 물론 피치못할 사정들은 있었겠지만 앞으로 일년에 한번 모이는 연말모임이라도 높은 출석율로 호응하여 서로가 하나되는 하루, 내 생애에 두 번 다시 오지않을 중요한 날로 여겨주길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부탁한다. 사랑하는 68동기들아!!!

동기들의 회동이 하늘까지 두둥실 떠오르는 깜짝놀랄 이벤트가 없어도 오금이 저릴만큼의 흥미나 재미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손이라도 가볍게 잡으면서 같이 한끼 식사를 하는것도 보람있고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말하고 싶구나.

우리 68동기들은 세속적으로 평가하자면 특별한 부를 형성한 사람도 없고 다른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둔 사람도 없지만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자기 몫의 삶을 영위한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가? 평범속에 비범을 내포하고 결코 잘난체 하지않는 순수한 나의 친구들. 40주년 행사를 앞두고 우리 임원진은 4월과 7월 두번의 예비모임을 역삼동에서 가졌다.

그곳에서 결정된 안건은 장소는 호텔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교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회비로 임원진은 백만원, 일반회원은 사십만원으로 결정되었다.

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약학대학 11층에 있

는 “University's Club”

인생사는 예기치 않는 일의 반복이다.

11월 17일 원래 나의 계획은 오후 세시쯤 모교에 도착하여 사십년동안 변화된 캠퍼스도 차분하게 돌아보고 도서관도 한번 들려보고 청룡이 자리잡은 연못가도 거닐어보고 교문을 들어서면 정원에 자리잡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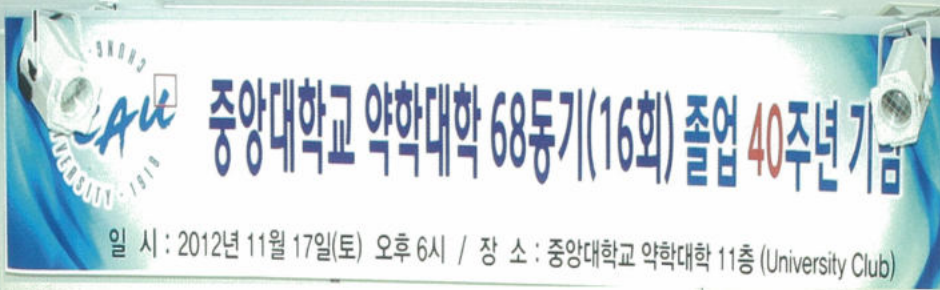
나름대로 추억의 뒀안길을 거닐며 그 빛나던 보석같은 시간들을 음미하려 하였는데... 당일아침 갑자기 피치못할 일이 생겨 지방을 다녀올 일이 생긴 것이다. 서둘러 일보고 무슨일이 있더라도 6시까지 도착하리라 계획했지만 예상은 터무니없이 빗나가 토요일 오후 짝 막힌 고속도로와 올림픽 대로에서 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그도 그럴것이 1부 순서에 자작시 낭송이 스케줄에 잡혀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바늘방석이 따로없었고 온몸에 는 식은 땀이 후줄건하게 베어들었다.

어이없게도 1부 순서가 끝나고 2부 순서로 이어지는 식사시간인 7시 30분경 가쁜 숨을 몰아쉬며 들어서니 교수님 볼 면목도 없고 동기들에게도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다. 11월이라 해가 일찍 넘어가버려 주위가 어둠에 파묻힌 교정의 낮설음에 자주 찾아오지 못한 나의 게으름을 한껏 탓하며... 어느 기수나 비슷한 의례적인 1부 행사는 끝나있었고 난 정신을 가다듬어 교수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호화스럽진 않았지만 단아하고 깨끗한 실내 한쪽으론 적당한 가지수의 음식들이 놓여있었고 원탁 테이블엔 교수님들, 동기생들 옹기종기 모여앉아 담소를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아늑한 고향의 품에 안긴듯한 착각에 사로잡혔다. 이 자리를 빌어 어이없는 시간에 도착한 나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다.

그날 만사를 제치고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한덕룡 교수님, 김일혁 교수님, 김종갑 교수님, 손동현 교수님, 김기호 교수님, 허인회 교수님, 임철부 교수님, 신



화우 교수님, 김창중 교수님, 이광표 교수님 등 모든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와 16회 동기들의 졸업 50주년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또 현재 중앙대학교 약대 학장님이신 서동철 교수님과 약대 총동문회 서국진회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날의 모임을 위해 16회 역대회장들(초대회장 이상규, 그 뒤로 강명채, 안태환, 김광식, 최광식, 유기욱)과 그리고 현 회장인 조기현 회장의 노고도 우린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참석치 못한 동기도 많지만 지방에서 먼길을 마다않고 한걸음에 다가온 동기들, 남원의 이주열, 전주 신규언, 속초의 강경식, 동해의 김용환, 강화의 김광길, 천안의 김선기, 부부가 함께 참석해 준 박종례, 이종각 부부, 시아버님 생신치르고 참석해 준 이정순, 그리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참석은 못해도 전화로 미안함을 전하며 회비를 납부해 준 전영주와 몇몇 친구들...

모두모두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모임은 어느듯 끝나고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회포도 나누고 지방회원들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훗날을 기약하며 최선을 다한 집행부에게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오

랜시간 성실과 책임감으로 68동기회 총무를 맡아 애쓰다 이번 행사에 모임을 주도한 현 조기현 회장의 노고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68동기 친구들!!!

그날 내가 술잔을 들고 외친 건배사...

“여보당신”을 가슴에 새기며 영원토록 건강하고 행복 하여라

여: 여유롭게

보: 보람차게

당: 당당하게

신: 신나게 살자

그리고 서두에 내가 했던 말...

이젠 우리에게엔 특별한 날은 매일매일이란 것을 명심하고 “나중에”란 단어는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며 행복해집시다.

영원하라 68동기 친구들아!!!

보고 싶다 친구야!



정 순 철(36회)
前 동기회장

“땀 따디디 단땀, 땀 따디디 단땀” 갑자기 음악소리가 울린다. 이크, 사무실 책상위에 놓인 내 휴대폰 벨소리다. 얼른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정순철씨 핸드폰이 맞나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어, 반갑다. 나 동석이야. 88학번 김동석.” “김동석?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요즘 뭐하고 지내?” “응, 중대 의대에서 교수하고 있어.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고...” “오, 그래, 잘 됐네. 한국에 들어와 있었구나... 근데, 어떤 일로 전화했어?” “응, 그냥, 우연히 네가 변호사 한단 소식 듣고, 마침 물어볼 것도 있고, 또, 오랜만에 얼굴이나 볼까 하고 전화했지.” “그래? 그럼, 오늘 저녁때 볼까?” “Okay, 이따 7시쯤에 방배동에 내가 잘 아는 핫집이 있는데, 거기서 보자..” “알았어. 주소 문자로 좀 찍어줘...”

학창시절 얼떨결에 서로 약학과와 위생제약학과의 과대표를 맡아 MC(Medical Campus)건립을 위한 수업거부 투쟁을 하면서 동지애를 키웠던 동석이와 이렇게 거의 17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밤늦도록 밀린 대화를 나누느라 시간은 줄 몰랐다. 그러다가, 문득 동석이가 “야, 우리 동기들 번개모임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어때?” 하고 제안을 했고, 나도 흔쾌히 동의하고 그로부터 1개월 뒤 연락이 닿는 동기들에게 번개모임에 대해 알렸다.

놀랍게도 20여 명이 모였다. 졸업한 지 17년만의 만남이어서 처음엔 얼굴이 좀 낯설기도 했지만, 한 5분 정도 지나자 신기하게도 옛날 얼굴들이 다 되살아나는 느낌이였다. 대부분 40초반의 아저씨, 아줌마들이었지만, 마음만은 정말 20대로 돌아간 듯 했다.

이 번개모임이 시초가 되어 정기적인 동기모임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올해 졸업 20주년 행사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졸업 20주년 행사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총 20명의 준비위원을 선임하고, 나(前 동기회 남자회장)와 손은진(前 동기회 여자회장)은 각자 전체적인 상황체크와 회계를 맡기로 하고, 행사 총괄팀장 임성호 형(現 동기회 남자회장)과 연락총책 장문정을 중심으로 준비위원이 모두 역할을 분담하여 일사 분란하게 움직였다.



박화신(現 동기회 여자회장), 김동석, 김미향, 김진수, 류동명, 방극상, 변의주, 우경아, 이인아, 장원진, 차인혜, 홍종례, 박기호, 이정석, 이현진, 정현희를 포함한 우리 20명의 준비위원들은 3회에 걸쳐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Daum에 마련된 동기회 카페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치밀하게 행사를 준비해 나갔다. 준비위원은 아니었지만, 뒤늦게 카페에 접속한 최승희도 변뜩이는 아이디어로 많이 도와주었고, 멀리 미국에서 홍미영과 조술연도 수시로 응원해 주었다.

준비위원들이 전화를 할 때, 마치 울듯이 반가워하는 동기가 있었는데는 하면, 탐탁치않다는 듯이 뜨뜻미지근해 하던 동기들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동기들의 지속적인 전화를 통해 처음에는 관심이 적었던 동기들도 점차 이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D-Day인 2012. 10. 21. 무려 76명의 동기와 11분의 교수님, 그리고, 약대 동문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내빈이 참석한 근사한 재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동기들도 반가웠지만, 교수님들도 연세는 많으셨어도 여전히 정정하셔서 너무 기뻐다.



대학 88학번
30년 기념식 반갑다 친구야!
 교 약학대학 11층 (University Club)



김진수, 류동명의 프로 수준의 사회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이정석이 만든 수준 높은 동영상과 어우러져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류동명, 박기호의 기타연주와 노래, 장문정의 요들송, 김유식 형의 색소폰 연주, 우경아의 오카리나 연주 등 볼거리도 풍성했다. 김진수가 마련한 불타는 학구열상, 꽃중년상, 아이디어상 같은 다양한 시상식과 퀴즈게임도 참 재미있었다. 시상식 과정에서 여러 동기들의 애환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참 맘에 들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동기들도 많다보니 너무나 반가워 얘기꽃을 피우느라 몇 시간의 행사시간이 너무나 짧게만 느껴졌다. 1부, 2부, 3부를 거치면서 아쉽게 자정 넘어 모든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가장 짧은 하루였다.

행사를 마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다. 하지만, 어제 일

처럼 너무나 생생하다. 동기들을 만나기 전엔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지만, 막상 얼굴을 보고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앞으로 동기들 모두 건강하여 30주년 행사에서 다시 밝은 얼굴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가끔씩 정기모임이건 부정기모임이건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준비한 준비위원과 참석해준 교수님, 내빈, 동기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드르르륵” 카톡의 진동이 울린다. 박화신 회장의 메시지가. “12월 16일 송년번개, 1월 13일 신년총회”란다. 참으로 기대되는 송년과 신년이다. 꼭 가야겠다. 벌써부터 설렌다...^^

세균(bacteria)의 족보를 찾아서

편집위원회

놀라운 미생물의 세계

미생물(microorganism)은 보통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생물이며,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중 일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해를 끼치는 종류도 있습니다. 유익균의 예를 들면 유산균은 물론 양조나 제빵에 없어서는 안될 효모균도 있고, 또한 특정 미생물이 없으면 섭취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 몇몇 미생물은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데(병원성미생물; pathogen), 사실 미생물은 모든 육식 동물, 천재지변 혹은 전쟁보다도 더 큰 인류의 사망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종류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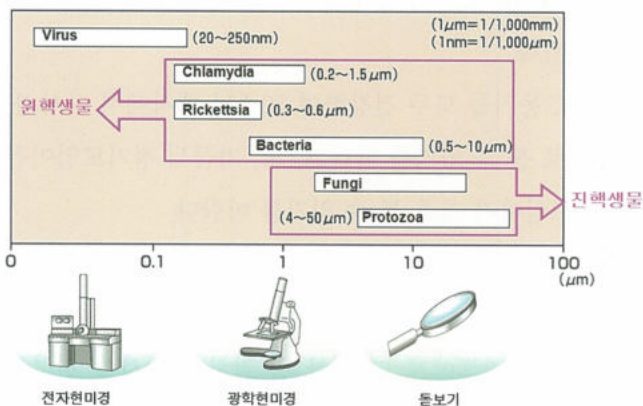


그림 1. 병원성미생물의 분류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야만 관찰이 가능한 미생물은 크게 바이러스, 원핵생물, 진핵생물의 3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세포의 형태를 지니지 않으며 단백질로 된 막 속에 DNA 혹은 RNA와 같은 유전물질로 구성되

어 있는 바이러스(virus)를 별도로 분류하되, 세포의 형태를 띠는 미생물은 핵막의 유무에 따라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핵생물(prokaryotes)은 세포내 핵의 요소가 되는 물질이 있으나 핵막이 없어 핵의 구조가 없는 생물로서 세포의 구조가 극히 간단하고 원시적인 생물을 말하며, 세균을 비롯하여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리켓치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핵생물(eucaryotes)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며 세포질 속에 여러 가지 소기관을 지니고 있는 생물로서 고등식물이나 동물의 세포와 같이 고도로 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효모와 곰팡이를 포함하는 진균류나 원충류가 해당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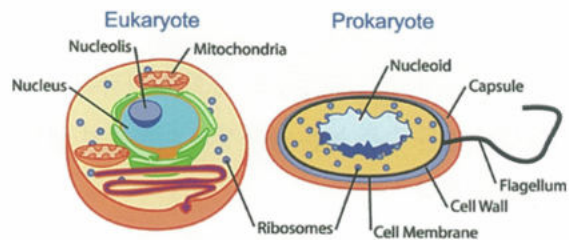


그림 2. 진핵생물과 원핵생물

먼저 밝히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병원성 미생물들은 각기 그 형태나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구조적,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은 고유의 활성을 가진 전문치료제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강력한 항생제라고 하더라도 바이러스나 진균 감염증을 치료할 수는 없으며, 각각 항바이러스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하여 치료해야 합니다.

항생제요법의 이론적 근거 - 선택독성

여기서 항생제 요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선택독성

(selective toxicity)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독성이란 숙주(사람)에 대한 유해작용 없이 생체내 병원성 미생물의 살멸 또는 발육저해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인체세포와 세균세포의 구조적인 차이에 기인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가장 바깥쪽이 세포막(cell membrane)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세균 세포는 세포막에 더하여 그 바깥쪽에 세포벽(cell wall)을 위시한 세포외피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항생제는 인체 세포에는 없고 세균 세포에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세포벽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살균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체 세포에 큰 해를 주지 않으면서 세균 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항생제라면 당연히 선택독성이 높은 항생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암제는 선택독성이 낮아 암세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상세포에도 상해를 주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상주하고 있는 정상균총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감염증이 반드시 상처 등을 통해서 외부에서 유입된 미생물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내에서 정상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외인성 미생물(exogenous microorganism)은 정상적으로 인체 밖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로 당연히 대부분의 미생물은 외인성 미생물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인체 내에서 서식하는 미생물도 있으니 이를 내인성 미생물(endogenous microorganism)이라 하며,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정상균총(normal flora)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존재 부위로는 구강, 비강, 소장, 대장, 피부 및 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증이란 건강한 상태에서는 비병원성을 보이고 있는 정상균총의 균형이 병적인 요인에 의해 깨져 특정 미생물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원래 서식

하던 곳에서 다른 부위로 이동했을 때 나타나며, 물론 보다 일반적으로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미생물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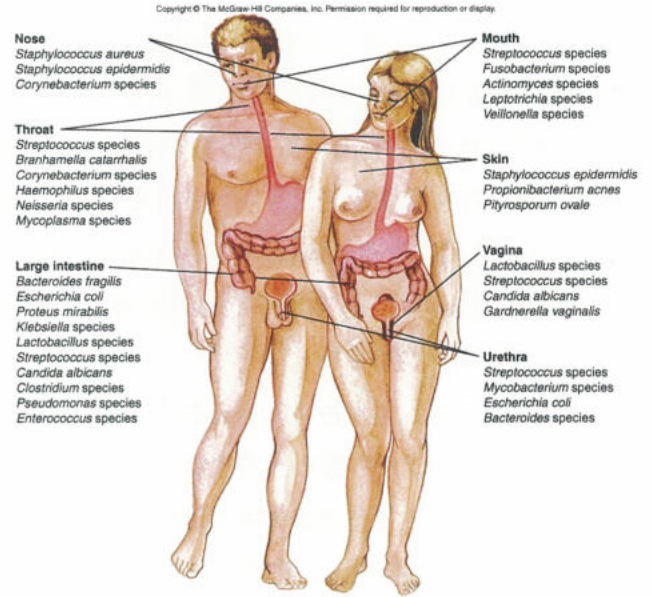


그림 3. 정상균총의 분포 부위

서식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 감염증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숙주 체내로 침입한 세균의 대규모 성장과 증식이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세균은 다양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서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이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성장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집락(colony)라고 부르는 세균의 덩어리는 바람직한 실험실 조건 하에서 빠르게 성장, 증식하여 형성된 세균 세포의 커다란 집단을 말합니다.

표 1. 세균 성장의 필요조건

온도	사람 체온과 유사한 범위인 20℃~40℃
산도(pH)	대부분 중성 pH에서 가장 잘 성장
산소	산소 요구 정도에 따라 호기성균과 혐기성균으로 구분
영양소	영양소와 이용률에 따라 성장 제한

각각의 세균 종류는 가장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정 온도, 산도(pH), 산소농도 혹은 영양소의 조건이 달라

지며,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세균들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균은 북극이나 온천지대와 같은 극한적인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세균들에게 최적의 온도범위는 체온(37℃)과 유사한 20-40℃사이입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중성 pH에서 가장 잘 성장하는데, 혈액은 상대적으로 중성에 가까운 약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세균은 질(vagina)과 같은 산성 조건에서, 일부 세균은 장(gut)과 같은 혐기성 환경에서 서식하기 적합하게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 요구 정도에 따라서는 호기성균은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며, 산소가 없으면 사멸합니다. 반면 혐기성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을 선호하며, 오히려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 성장이 억제되거나 사멸하게 됩니다.

또한 각종 영양소의 이용률에 따라 그 성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세균의 복제는 매우 효율적인 과정으로 평균적으로 20-30분이 소요되는데, 따라서 최적의 실험실적 조건 하에서라면 어떤 세균의 집락은 20분만에 2배로 될 수도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하루 동안에 109-1010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람염색 - 양성균은 보라색, 음성균은 붉은색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원래는 세균의 색깔이 없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운데, 따라서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을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염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람염색법(Gram staining)은 세균의 분류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염색법으로 세균의 세포벽을 포함하는 세포외피 구조의 차이로 그람양성균과 그람음성균이 다르게 염색이 되는데, 몇 단계의 염색 결과 처음의 보라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균을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bacteria)이라고 하며, 탈색된 후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균을 그람음성균(Gram negative bacteria)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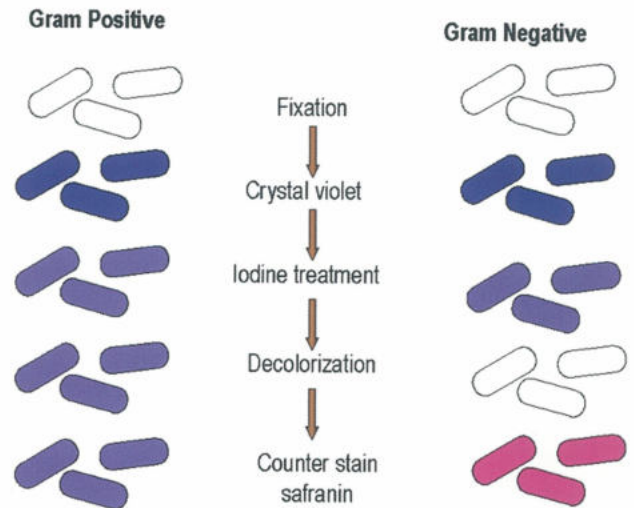


그림 4. 그람염색법

이런 염색성의 차이는 양성균과 음성균 사이의 세포외피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떤 항생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에 따른 세균의 분류

가장 일반적인 세균 분류 체계 중 하나는 형태에 의한 것으로, 세균의 기본적인 형태는 구균, 간균, 그리고 나선균입니다. 구균(cocci)은 단독으로 존재하거나(단구균), 두 개가 쌍을 이루거나(쌍구균), 사슬 모양(연쇄상구균) 혹은 포도송이 모양(포도상구균)으로 존재하는 구형의 세균을 말합니다. 감염증에서 가장 중요한 구균 두 가지는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폐렴 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입니다.

간균(bacilli)은 막대모양의 세균으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은 단일세포로 존재합니다. 감염증에서 중요한 간균으로는 대장균(*Escherichia coli*), 인플루엔자균(*Haemophilus influenzae*),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등이 있습니다.

나선균(spirilla)은 나선형으로 꼬인 세균으로 대부분 단일세포로 존재하는데, 잘 알려진 나선균은 *Treponema pallidum*으로 매독의 원인균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형태가 불규칙한 세균도 있으며, 때로는 편모나 섬모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환경 선호 - 호기성균

분류 시스템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각종 세균의 산소 요구 정도(oxygen requirement)에 근거하는 것으로 호기성균과 혐기성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호기성균(aerobes)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좋아하는 세균으로, 주로 호흡과정을 통해서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반면 혐기성균(anaerobes)은 산소가 희박한 환경을 좋아하는 세균으로 발효과정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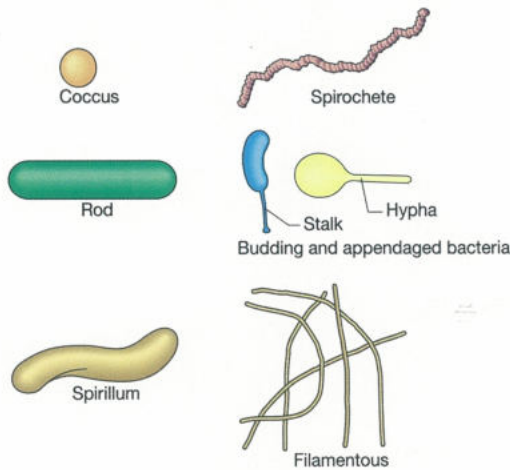


그림 5. 형태에 따른 세균의 분류

먼저 그람양성 호기성균은 비교적 간단한 세포벽 구조를 가지면서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선호하는 특성상 신체 내에서 비교적 산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피부나 상기도 표면에서 쉽게 발견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황색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을 비롯하여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장구균(*Enterococcus faecalis*) 등이 속합니다.

그람음성 호기성균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세포벽 구조를 가지면서 산소가 풍부한 환경을 선호하는 특성상 신체 어디서나 잘 서식하나 특히 위장관이나 비뇨생식기계 및 하기도에서 감염증을 유발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는데, 대장균(*Escherichia coli*), 임균(*Neisseria gonorrhoeae*),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등이 속합니다.

산소 없이도 잘먹고 잘사는 혐기성균

혐기성균(anaerobic bacteria)은 성장과 증식에 산소가

필요치 않으며, 편성 혐기성균의 경우 산소 존재하에 오히려 사멸합니다. 주로 산소 농도가 낮거나 존재하지 않은 체내 깊숙한 부위에서 서식하며, 농양(고름)과 같은 산성조건이면서 낮은 산소농도에서 증식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혐기성균으로 그람양성균인 파상풍균(*Clostridium tetani*), 식중독을 유발하는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 및 그람음성균인 *Bacteroides fragilis* 등이 있습니다.

세균계의 아웃사이드 - 비정형균

몇몇 세균은 정형균과는 달리 전형적인 세포외피(cell envelope)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자생할 수 없어 다른 세포 내에서만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형균(atypical bacteria)이라고 불리는데, 임상에서 주로 언급이 되는 비정형균에는 클라미디아,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레지오넬라가 있습니다.

클라미디아(chlamydia)는 필수적인 대사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세포 내에서 기생해야 하는데, 정형균과는 다른 세포벽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숙주의 방어체계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숙주 세포 내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C. trachomatis*는 눈과 상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C. pneumoniae*는 호흡기 감염을 유발하는 균주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mycoplasma)는 자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생물이며, 정형균과 달리 세포벽이 없고 3층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M. pneumoniae*는 공기 중으로 옮겨지며, 소아와 청소년의 비정형 폐렴을 일으키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균주입니다.

레지오넬라(legionella)는 그람음성의 무아포성 간균으로, 세포 내에서 기생하며 폐렴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병(냉방병)을 유발하는데, 이는 최초로 미국의 재향군인대회에서 미지의 폐렴이 유행한 데서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재향군인병'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인 *L. pneumophila*는 병원의 냉각탑이나 호수물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고인의 명복은 빚이다

김명섭(5회) 자문위원 별세

1985~88년 대한약사회장... 장애인 지원·마약퇴치에 앞장



김명섭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겸 구주제약 회장이 21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제25~27대 대한약사회장과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약사회와 정치권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서울공고와 중앙대 약대를 나온 김 회장은 1964년 영등포 약국을 개업했다. 이후 1973년 영등포구 약사회장으로 이른바 '영등포 사단' 시대를 이끌었다. 1977년 구주제약을 설립해 직접 제약업에도 뛰어 들었다. 1980년 서울시약사회장에 당선되고 1982년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중앙회 업무에 발을 들였다. 1985년 제25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돼 약사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6, 27대 대한약사회장에 내리 당선됐다. 198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 13대 총선 때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민정당 공천으로 여의도에



원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1998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국민회의 보건담당 총재 특보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맡으며 정계에서도 발을 넓혀나갔다. 정치 입문 이후 김 회장은 장애인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2003년 중증장애인 시설인 송천한마음의집을 설립해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았다. 구주제약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해 마약퇴치운동에도 앞장섰으며 2001년부터 2010년 4월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냈다. 평소 '앉아서 할 일은 서서 하고, 서서 할 일은 뛰면서 하자'를 생활신조로 내건 고인의 성격이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유족으로 부인 안정자 씨와 우태(구주제약 사장), 우창, 우영 씨 등 3남이 있다

故 김명섭 명예회장 약력

▶출생
1938년 7월 27일 서울에서 출생

▶학력
1957년 서울공업고등학교 졸업
1961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1988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1990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력
1964년 영등포약국 개설
1973년 영등포약사회 회장
1975년 남서울청년회익스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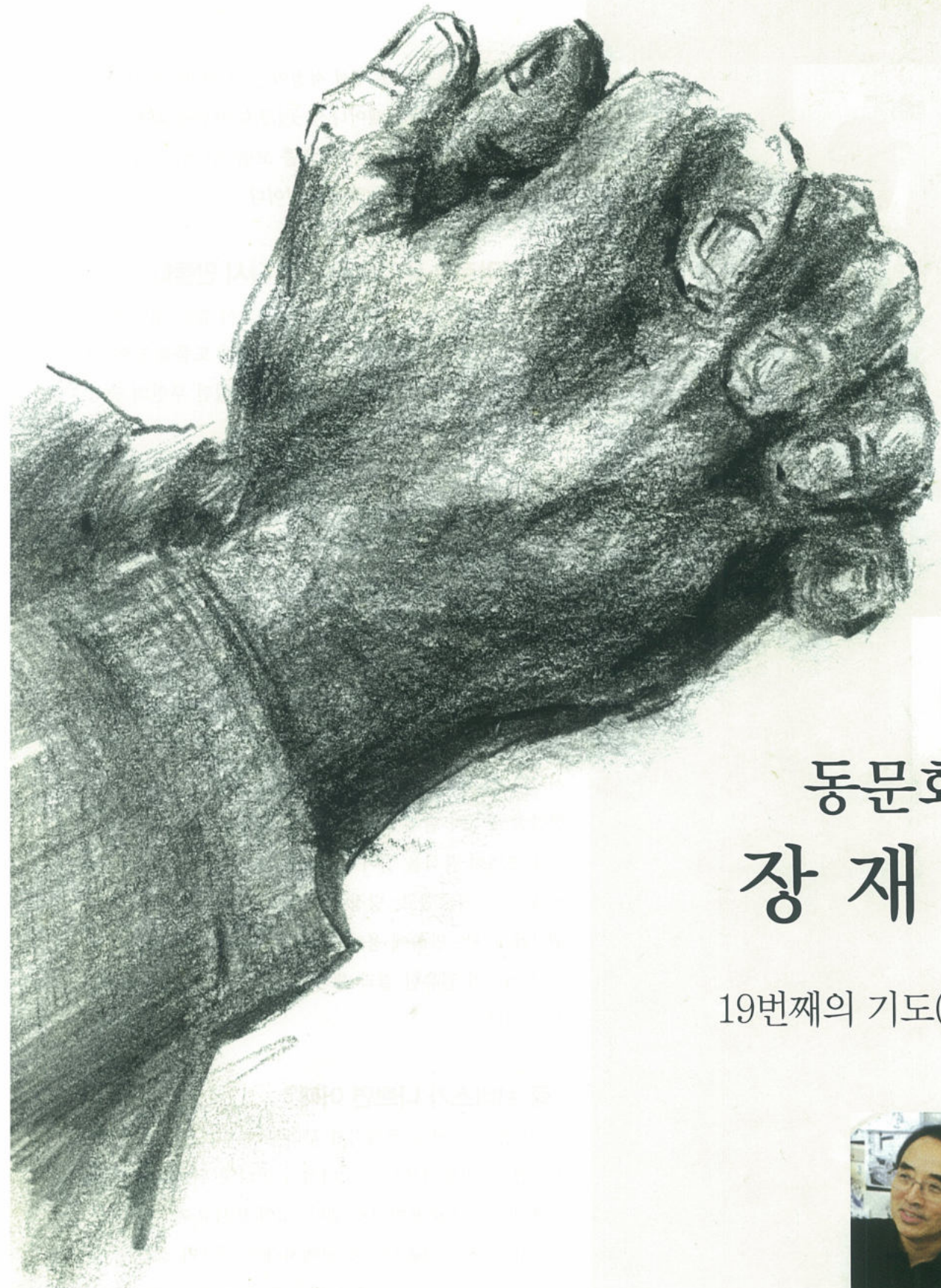
1974년 구주제약 설립
1980년 서울시약사회 회장
1982년 대한약사회 회장직무대리
1983년 대한약사회 부회장
1984년 서울시장 자문위원
1985년 대한약사회 제25대 회장
1986년 대한약사회 제26대 회장
1989년 대한약사회 제27대 회장
1985년 민주평통 자문위원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영등포 을)
1992년 대한약사회 총회회장
1992년 민자당 영등포 갑 지구당위원장
1993년 중앙대학교 총동창회장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영등포 갑)
1997년 한나라당 장애복지위원장
199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사회담당 특보
1998년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1999년 국회의원회 장애인위원장
1999년 국회의원총재 보건담당 특보
2000년 새천년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제3정책조정위 부위원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영등포 갑)
2000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2001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 5, 6대 이사장(2010까지)
2001년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2001년 새천년 민주당 사무총장
2010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총재
2011년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상훈
국민훈장 동백장 / 대한약사금장

▶저서
우리나라의 약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전략 / 정직하면 바보랍니까



동문회장 장재인

19번째의 기도(祇禱)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어떤 귀향 (歸鄉)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서론이 길구나!

조용필의 19집 '헬로'가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내가 이 노래집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이후로 자력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곤 없는 문화

사각지대의 원시인으로서 음악성 어찌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단지 이 땅의 산업화를 일군 주역이었으며 한때 민주화의 투사들이었으나 어느 순간 외로운 아버지이자 수구꼴통의 꼰대로 바야흐로 직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소위 베이비부머(1955-63년 사이에 태어난 전후 세대)들의 쓸쓸한 심정을 그린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 교수가 가사를 쓴 '어느 날 귀로에서'란 곡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그렇다. 더도 덜도 말고 바로 그 베이비부머의 일원으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모든 부양책임을 짊어지지만 부모는 당연히 모셔야하되 애들에게는 의지할 수 없다는, 그래서 대책 없이 노년을 맞고 있는 소리 내어 울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현사의 바로 '그들'중 한명이 나였던 것이다.

이 글은 어느 날 귀로에서 서성이는 한 베이비부머가 부친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나신 곳(日本 岐阜縣 岐阜市)을 모시고 다녀오겠다는 작은 염원을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고 돌아온 짧은 귀향을 정리한 것이다.

기한만으로 폐기된 여권을 다시 만든다

지난 2013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잠시 틈을 내어 부친과 누님을 모시고 일본에 유학중인 조카의 도움을 받아 해방과 함께 귀국하신 후 다시 찾을 수 없었던 부친의 출생지 일본 기후를 방문했다.

10수년전 일찍이 이런 방문을 염두에 두고 어렵사리 부친을 설득해 거의 1년여에 걸쳐 여권을 만드는데 성공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흔쾌히 나설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에 여권의 첫 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기한만으로 폐기시킨 기억이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 고령에 따른 거동의 불편함이 가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이 성사된 것은 어렵사리 유학생 활을 마무리한 조카의 공이 컸다. 늦게 시작된 유학생회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조카는 지난 3월 동경공대에서 팔목 할만한 평가와 함께 당당하게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졸업식 참석을 빌미로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일본 방문을 다시 거론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누님과 조카와 삼각편대를 이루어 권유한 결과 생각 외로 선선히 동의를 해주신 것이다.

좀 서비스가 나쁘면 어때?

4월 중순 일정이 확정되자 부랴부랴 부친 여권을 다시 만들었고, 비행기표는 아들녀석이 인터넷 뒤져서 구해준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기로 했다. 노인 모시고 가는 길이라 안전하게 국적 항공사편을 선택하라는 친구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지만,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저가 항공사의 티켓값은 거의 절반수준, 장거리가 아니니 제주도 가는 기분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명색이 국제선임에도 물 한잔 주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귀국 편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등산용 스



틱(부친이 평소 쓰시던 나무지팡이를 가지고 갈 수는 없었으니)을 몇 만원의 추가비용으로 화물처리하게 한 것이며, 아 참! 당연히(?)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하는 기대도 전혀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들 어떠리. 모처럼 떠난 부담 없는 여행길, 부친 얼굴이 편안하시니 이런저런 불편함은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비행기는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장어와 돈까스

여행가방 찾는 과정에서 벌어진 웃지못할 에피소드는 도착 환영식쯤으로 여기고 입국심사를 받고나가니 아침에 동경에서 신칸센으로 달려온 조카가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2년 전쯤 외할아버지의 고향방문에 어떻게든 기여를 하고 싶었던 조카는 유학생들의 빠듯한 여건에서도 시간을 짜내 달랑 옛날 주소를 적은 쪽지 하나만 들고 이번 방문지인 기후를 미리 답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런 정성이 바탕이 되어 이번의 실제 방문으로 연결된 것이다. 공항에서 기후로 바로 가는 급행전철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일본 전역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평가된 장어(うなぎ)를 먹고 가야 한다는 조카의 주장에 따라 일단 나고야역으로 이동한 다음 조금 떨어진 도심의 무슨 백화점인가 꼭대기 층에 있는 식당가로 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오후 3시를 넘겼으니 제아무리 유명한 음식점이라고는 하나 별 불편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식당 앞에 진치고 앉아있는 대기자들의 길고 긴 행렬을 보는 순간 여지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조카의 거듭된 의견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1시간 30분이나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일, 과감하게 근처에 있는 돈까스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알고 보니 나고야가 사랑하는 별미는 바로 돈까스, 핑 잡으려다 닭 잡은 꼴이 아니라 그 유명한 장어집에서 맛은 있을지 모르나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길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 자명한데 비해 육즙이 독특하게 살아있는 두툽한 철판 돈까스와 샷포로 생맥주 한 잔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후시에 입성하다

끝끝내 아쉬움을 토로하는 조카의 장어집 예찬을 뒤로 하고 다시 나고야역으로 이동, 거의 지체하지 않고 급행전철로 기후시로 이동했다. 부친의 기억에는 당시 공업지구였던 도시의 특성상 미군기의 전략적 공습으로 거의 불에 타 폐허상태였던 기후역 주변은 요즘 흔히 보는 대규모 역사개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환골탈태하여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기후역에서 사방으로 뻗어 있는 편리한 연결통로를 이용해서 근처에 있는 비즈니스호텔인 IL CREDO에 체크인, 그 짧은 시간에도 부친은 호텔 뒷편 주차장 쪽에 마련된 흡연실을 썩 마음에 들어 하셨다.

집에서라면 저녁 드시고 8시 뉴스 시청하면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일상이지만, 이번 여행길이 어떤 길인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쉽게 잠들기는 여차피 어려운 법, 동네구경 나간 김에 전형적인 일본식 주점(居酒屋)에 자리를 잡고 일본 사케에 오탕이며 꼬치류 등 익숙한 몇 가지 안주로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조출한 의식을 치렀다.

여행목표 초과 달성!

4일 아침 호텔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는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친 출생지와 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많이 바뀌긴 했으나 비교적 번잡하지 않은 시골 동네라 이전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는 거리를 기억을 더듬으며 한발 한발 걸음을 옮기시는 부친을 부축하여 초등학교(木之本小学校)부터 방문을 했다. 역시 새로 들어선 건물

이며 오랜 세월의 흐름 탓에 방진되었던 기억의 회로망을 재충전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는 부친의 감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만하면 되었다는 부친의 만족스런 표정을 카메라에 담고 근처에 있는 출생지 겸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을 찾았다. 어디에 세탁소가 있었고, 어디에 문구점이 있었고 하는 기억을 쫓아 찾아간 지번이 그래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다행이었지만, 사진을 몇 장 찍고도 뭔가 허전하여 바로 근처에 있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작은 찻집에 들러 추억의 커피도 한 잔 마셨다.

해방 즈음 폭격에서 무사하지 못했던 사정상 이 동네에서 그렇게 오래산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을 들긴 했지만, 조카는 못내 아쉬운지 사람들만 눈에 띄면 무조건 달려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뒤쪽 골목에서 담소를 나누던 몇몇 할머니들과의 대화 끝에 이 동네에서 비교적 오래 사신 분과 연결되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런 일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부친의 바로 아래 동생)의 초등학교 친구로 밝혀졌고, 드디어는 부친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근처에 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까지 된 것이다.

그래서 한걸음에 달려간 집이 바로 나가세(長瀬光輝)씨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자 나온 부인이 자초지종을 듣고 안에 기별을 넣은 잠시 후 당사자인 나가세씨가 놀란 모습으로 나타나 부친과 통성명을 하는 찰나의 시간이 흐르다 감격의 포옹으로 이어진 것이다.

시골마을에서 특별히 일상의 큰 변화 없이 조용히 살아 가던 노부부에게 아연 활기가 돌면서 집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였고, 자식들 다 떠나보내고 조용

히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차분한 분

위기의 응접실에서 커피를 한잔 대접 받으며 옛이야기로 빠져 들었다. 몇몇 선생님들과 동창생들의 이름이며 이런 저런 에피소드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왔다. 당시는 성적순으로 급장을 지명하던 시절, 가장 성적인 좋았던 부친이 일본친구들을 제치고 급장 명찰을 달았던 이야기며, 어느 날 부친이 체육시간에 발을 심하게 다쳐 양호실에 부축하고 간 일화에 이르기까지 귀가 잘 안 들리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억력을 보여 주셨다. 여행 말미에 누님은 이 극적인 해후를 두고 '나가세씨가 부친의 오늘 방문을 위해 고맙게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명쾌하게 정리한 만큼 이 여행의 백미요 망외의 소득이었음에 틀림없다. 갑자기 오는 바람에 빈손으로 방문한 것에 대해 미안한 인사를 거듭 드리고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방문을 마무리했다. 택시를 타고 나오면서 부친은 아까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중고교 시절에는 공부 잘 하는 조선인을 시기질투 하던 동급생 일본 주먹에게 어디론가 끌려가 봉변을 당한 이야기를 덧붙이셨다. 말씀하시는 부친의 표정이 그리 밝을 수가 없었다.

료칸에서 온천욕까지

훨씬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나가라가와(長ら川) 근처에 있는 이 지역에서 유명세가 높은 일본식 전통 료칸인 주하치로(十八樓)에 여장을 풀었다. 가마우지를 이용해 낚시를 하는 소위 우카이로 유명한 나가라가와는 서울의 한강처럼 기후의 상징이며 역사가 되어 흐르는 강으로 부친의 모든 추억도 이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기억이 선하다.

이어 조카가 미리 들렀던 작지만 일본식의 전형적인 대를 이어 운영하는 스시집으로 향했다. 지난번 예비답사때 일부러 시식을 하며 나이 지긋한 주인장에게 언제고 한국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올 테니 꼭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남겼다는데, 조카의 기특한 주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던 주인은 기후 안내책자에서 부친의 초등학교 부분을 펼친 채로 우리 앞에 나타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주었다. 이 푸근함은 식후의 기후공원 산책까지 연결이 되었다.

다시 숙소로 귀환, 사진으로나 보던 다다미방에서 일본식 유카타(浴衣)를 입고 방안에서 차려주는 전통 식사를



음미하기에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아 큰 홀에서 서빙해주는 일본정식을 즐기기로 했다.

이후 주어진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노천탕이 검비된 잘 정비된 온천을 이용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의 경우 남탕과 여탕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걸러 위치만 바꾼다는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관광객이 다음날 무심코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 뛰쳐나왔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터이다.

워매, 물가가 비싸긴 비싸당게요!

5일 아침 제법 그럴듯한 조식 뷔페를 즐긴 후 다시 나고야로 이동, 말로만 들던 신칸센으로 다음 목적지인 동경으로 향했다. 아마 KTX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신기하게 타봤을 특급열차는 그러나 차장이 비행기 창문처럼 작아 시원하게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우리 KTX에 비해 별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어딜 가나 살인적인 교통비며 기타 물가 때문에 그냥 밥 먹고 자고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생각처럼 만만하지는 않았음은 부기해야겠다. 귀국시 편한 코스를 택해 시나가와(品川) 역 앞에 있는 무지막지하게 큰 호텔단지인 프린스호텔에 짐을 맡기고, 그냥 넘어가기 섭섭해 근처에 있는 라면 전문 식당가로 향했다. 라면 천국인 일본답게 같은 메뉴가 하나도 없이 가게마다 독특한 메뉴를 내세우는 이국적인 식당에 앉아 생면의 풍미와 깊은 육수의 맛을 충분히 느끼며 맥주잔을 비웠다. 남은 시간을 이용해 긴자를 구경하고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는 만찬은 조카의 지인이 소개해준 유명한 도심공원인 아사쿠사(淺草寺) 근처의 죽보있는 일본식당에서 정식 코스요리를 먹는 호사를 누리기로 했다. 샤미센을 직접 연주하는 주인장의 서빙이 이채로운 식당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흡족함을 나타내신 부친의 기분과 함께 이번 여행의 성과를 나누며 따끈한 정종 한잔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도와주기에 충분했다.

참 고약하다, 저가 항공사

6일 아침 리무진으로 나리타공항으로 이동, 11시 반쯤



체크인 하려는 순간 항공사 카운터에서 보여주는 A4 용지에는 오늘 비행편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문이 달랑 인쇄되어 있었다. 다음날 학교강의가 있다는 생각과 함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터미널도 다르고 적당한 시간대에 비행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동도 불편한 노인 모신 입장이라 순간적으로 가슴이 덜컥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화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지만, 결국 원어민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는 조카가 이리저리 뛰어다닌 덕분에 12시쯤 다른 터미널로 이동해 저가항공편으로 좀 남겼던 경비에 거의 복리수준의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반납한 끝에 대한항공 1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저가항공이라 서비스 부재는 당연한 것이고 미안하다는 것도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통지하고는 끝, 항의할 데조차 없는 후안무치함에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이번 여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그것 하나로 모든 분노를 내려놓기로 했다만, 아흐 앞으로는 절대로 AirAsia는 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의 이 황당한 소동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그림 같은 일정이 될 수 있었겠지만, 출발시의 이런저런 걱정이 부친의 초등학교 동창생과의 만남이라는 기대이상의 소득과 함께 해피엔딩으로 일정을 소화해 낸 것이다.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 어떤 귀향이 연로하신 부친에게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상념에 빠져 본다.

章山 허인회 교수의 中英對照

閑忙(한망); 한가한 때와 분주한 때

五言律詩



허인회(4회)
명예교수

奔走朝行內(분주조행내) 조정내의 일로 분주하니
 棲遲林墅間(서지림서간) 숲 속 농막에 늦게 가 쉬네
 多因病後退(다인병후퇴) 대개 아플 때만 집에 돌아오고
 小及健時還(소급건시환) 건강해서 돌아가 일한 적이 거의 없네
 斑白霜侵鬢(반백상침빈) 흰 서릿발이 살췍에 찾아들고
 蒼黃日下山(창황일하산) 황혼의 해는 산 넘어 떨어지네
 閑忙俱過日(한망구과일) 한가하고 바쁜 가운데 날이 지나가고
 忙按不如閑(망교불여한) 바쁜 것이 한가한 것만큼 좋지 않네

Idle Times, Busy Times

Rushing around on morning errands,
 for relaxation, my villa in the woods,
 but mostly I get to go there only when I'm sick;
 it's seldom I enjoy it in good health.
 Patches of white-frost invades my temples;
 in a yellow flurry the sun drops behind the hills.
 Idle times, busy times— both get you through the days,
 but busy is nowhere as nice as idle.

[민자의 뜻] 朝行內: 조정안에서의 일. 林墅間: 숲 사이의 농막. 蒼黃日: 늙어 가는 황혼의 해. 按: 비교하다. 견주다.

[역설] 830년 洛陽에서 지은 시이다. 나라의 일 분주하여 집에 돌아가 쉬는 날은 병이 났을 때 만이고 그러다 보니 늙고 황혼이 다가왔다. 한가한 것이 분주한 것 보다 좋단다.



2013-1학기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장학종류	금액	성명	전공	학년	학번	평점	비고
본동문회	3,000,000	이강보	약학	4	20105261	3.16	
	3,000,000	인정렬	약학	4	20105506	3.60	
	3,000,000	최서영	약학	5	20095365	3.68	
	3,000,000	정가희	제약학	4	20105480	3.88	
	3,000,000	김희정	제약학	4	20105916	2.81	
	3,000,000	정선무	제약학	5	20095933	3.18	
	3,000,000	주혜진	제약학	5	20095970	2.96	
여동문회	1,000,000	김미나	약학	5	20095698	3.12	
안산동문회	1,000,000	안민지	약학	4	20105341	2.57	
부산동문회	1,000,000	한종수	제약학	4	20105574	3.35	
나사모동문회	1,500,000	이병두	제약학	5	20095952	3.50	
약제반동문회	1,500,000	김지훈	약학	5	20095856	2.38	
약품물리반동문회	1,000,000	이지형	약학	5	20095174	3.05	
	1,000,000	남달리	제약학	5	20095629	3.34	
	29,000,000						

장학기금 현황

2013년 7월 25일 현재

장재인(17회) 동문회장	천만원
손동헌 (1회) 명예교수	3천만원
故 김명섭 (5회) 자문위원	1억원
홍흥만(1회) 동문	백만원
용영일(7회) 동문	5백만원
김윤국(14회) 동문	5백만원
이극선(20회) 동문	3백만원
정찬현(20회) 동문	3백만원
김현태(20회) 동문	3백만원
임경원(20회) 동문	7백2십만원
이내홍(25회) 동문	3백만원
이동규(25회) 동문	5백만원
김영후(26회) 동문	6백만원
성정희(26회) 동문	36만원
이종양(26회) 동문	3백만원
한갑현(26회) 동문	6백만원
김정호(27회) 동문	6백만원
최충식(27회) 동문	3백만원
민병희(27회) 동문	육십만원
남상진(27회) 동문	3백만원
박영달(27회) 동문	3백만원
장원규(28회) 동문	3백만원
이영주(28회) 동문	6백만원
양덕숙(28회) 동문	5백만원
곽필신(30회) 동문	3백만원
김정민(41회) 동문	3백만원
이병두(40회) 동문	3백만원

신임교수 프로필



배지현 교수

[학력]

- 1985~1989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B.S)
- 1991~1993 Wayne State University 산업독성학 전공 (M.S)
- 1993~1998 The University of Michigan 독성학전공 (Ph.D)

[주요경력]

- 1998~2003 Stanford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 2004~2012 차의과학대학교 조/부교수
- 2012~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전공분야]

- 독성학
- 중양학
- 분자세포생물학



김은영 교수

[학력]

- 1995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사)
- 2006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대학원, 임상약학전공 (약학석사)
- 2008 Univ. Florida, College of Pharmacy (Doctor of Pharmacy)
- 2012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약학, 임상약학전공 (약학박사)

[주요경력]

- 2013~현재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부교수, 임상약물치료학
- 2012~현재 : 미국 WESTERN IRB international fellow
- 2012~현재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 2011~현재 : 의약품분류 자문위원
- 2010~현재 : 삼성서울병원 IRB 위원
- 2010~2013 : 충남대 약학대학 조교수, 약무임상약학 주임교수
- 2007~2010 : 국민보험공단 북악지도 자문약사
- 2010이전 : 삼성서울병원 임상약사(내과중환자, 감염내과, TDM등)

[전공분야]

- 임상약학, 약료(pharmaceutical care),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MTM)
- 임상약물동력학 (주요 TDM약물 모니터링, PKPD modeling, 환자 혈중농도분석을 통한 집단 약물동력학 및 주요 파라미터 연구, 환자 적정치료약물농도 유지를 위한 약 용량 개발, 모델링 근간의 약 용량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등)
- 약물 유해반응 및 DUR관련 연구 등
- 소아 약물치료근거 기반 확립 연구 등
- 임상 실무 지원을 통한 치료 적정화 연구 (중환자 약료, 감염질환, Oncology, 등)
- Medicine Information
- Evidence Based Pharmacy (실무중심의 가이드라인 개발, 메타 분석 등) 등

플래리스

해피그라

바메틴

For the Healthy Life & Fruitful Future

익스반

오스테민

게보린

트레스탄

뉴토인

故 김명섭 선배님
당신의 떠난 자리가 너무 크고 허전합니다.
시대가 요구했던 巨木
약사를 대표하였던 巨星
분명 당신은 오늘의 中央을 있게 한 英雄(英雄)이었습니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2001년 9.11테러 발생 한달쯤 전 중앙대학교 북미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겸 약학대학 동창회를 참관하러 가는 미국 방문단 일행의 말석에 동문회보 편집위원의 이름으로 참여했는데, 일행 중에 그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던 김명섭 회장이 계셨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 일행으로 대접받아 귀국편 중간기착지 앵커리지 공항 귀빈실에서 음료 한잔 품나게 마셨던 기억이 새롭다. 잠시 후 재개된 비행 중 잠깐 보자는 전갈을 받고 일등석으로 들어섰다. 여정도 중 몇 번의 쇼핑 기회에도 달랑 책 몇 권 사는 것으로 그친 어린 후배의 무지를 걱정하셨을까? “자네 집사람에게 빈 손으로 갈 수 있나? 이거라도 갖다 드리게.” 하시며 작은 화장품 하나를 건네셨다.

그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나로서는 새까만 후배까지 챙겨준 잔정이 많은 선배로 기억에 남아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사무부총장에서 사무총장으로 승진!!
동문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이라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앞으로 2년동안 내 삶에서 가정 다음으로, 아니 가정보다 먼저가 동문회다.
회장님의 그림자로 묵묵히 따라가고 싶다.



“R&D에서 미래가치를 찾는 기업”

한국의 Best, 세계의 Best

韓·中 R&D 네트워크 보유한 연구개발 중심 기업

한미약품은 최첨단 시설과 우수 인력을 보유한 연구센터를 한국과 중국에 동시 운영하며, R&D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항암/천연물 신약 24건 보유

한미약품은 바이오, 항암, 천연물 등 분야에서 24건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며, 글로벌 제약기업 및 정부 등과의 선제적 파트너십으로 R&D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가장 많이 찾는, 제약기술의 메카

한미약품은 1989년 스위스 로슈, 1997년 스위스 노바티스, 2009~2011년 미국 MSD, 2012년 영국 GSK, 프랑스 사노피 등 글로벌 다국적사에 제약기술 및 복합신약 등을 수출했습니다.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20개 창출”

한미약품은 R&D 집중 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20개를 발매하고 이를 통해 세계 20위권 제약회사로 도약한다는 Vision 2020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 (02)565-1700 팩스 : (02)564-1701

E-mail : capa21@hanafos.com

<http://www.caupharm.or.kr>